

역사지리학과 고전문학 교육의 만남*

- 「만복사저포기」(萬福寺携蒲記)의 장소성 탐구를 중심으로 -

김하라**

- I. 『금오신화』(金鰲新話) 도입부에서 공간을 제시하는 방식
- II. 「만복사저포기」(萬福寺携蒲記)에 재현된 시공(時空)의 역사지리적 특성
- III. 「만복사저포기」의 장소들이 갖는 문학교육적 의의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소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携蒲記)에 재현된 공간의 역사지리적 구체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만복사저포기」는 전라북도 남원시를 배경으로 삼은 소설로서, 김시습은 28세이던 1462년에 실제로 호남을 여행하고 만복사를 포함한 남원 일대를 답사한 경험을 소설적 공간의 창조에 반영했다. 따라서 「만복사저포기」에 언급된 지명은 남원 고을의 실제하던 장소로서 역사지리적 접근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설적 공간을 구체적으로 비정하는 작업은, 소설의 서사가 갖는 의미와 작가의 창작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만복사저포기」의 서사와 결부하여 거론할 만한 장소로는 만복사와 지리산, 그리고 보련사와 개령동을 들 수 있다. 만복사는 전북 남원시 왕정동의 만복사지를 통해 그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입지에서 주목되는

* 이 논문은 2023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교내 과제번호: 2023-22-0118)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점은, 이 절이 남원 읍성 인근에서 오랫동안 고을 백성들의 소망을 두루 수렴하는 공간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리산은 남주인공 양생이 목격된 마지막 장소로서 ‘부지소종’(不知所終)이라는 소설의 결말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만복사의 경내에서 멀리 지리산의 능선이 보인다는 점은 이 소설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그 쓸쓸한 결말을 암시하는 공간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한편 보련사는 보련산 아래에 있던 사찰로서, 그 위치는 전북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로 추정된다. 이곳은 여주인공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개의치지 않고 그와의 사랑에 몰입하던 양생이 결국 상대방이 이승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비극적 절정의 순간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령동은 익명의 여주인공이 주로 속한 공간으로, 1379년 혹은 1380년에 있었던 왜구의 남원 침입 때 희생된 그 여성이 임시로 매장된 장소다. 본고에서는 이 개령동이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개령암지 아래의 골짜기라는 추론을 최초로 제기했다. 개령암은 지리산 정령치 인근에 있던 사찰인데, 김시습은 1462년 남원에서 함양을 거쳐 경주로 가는 노정에 그 근방을 경유했다. 개령동의 입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곳이 지리산의 권역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양생이 여주인공과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으로 그의 마음에 새겨진 장소이자 지리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개령동은, 단 한 번의 사랑을 끝내 간직한 채 사라진 양생의 동선에서 중요한 좌표가 된다.

핵심어: 소설, 장소,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만복사, 개령동, 보련사, 지리산

1. 『금오신화』(金鰲新話) 도입부에서 공간을 제시하는 방식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소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携蒲記)는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라는 이가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¹⁾

이렇게 소설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 공간과 주인공 남성의 성씨를 병칭하

며 도입부를 구성하는 방식은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일관된 작법 중 하나다. 예컨대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은 “송도(松都)에 이생(李生)이라는 이가 있었다”로 시작되고,²⁾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는 “경주(慶州)에 박생(朴生)이라는 이가 있었다”로 시작되며,³⁾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은 “송도에 천마산(天磨山)이 있는데 (...) 고려시대에 한생(韓生)이라는 이가 있었다”로 시작되고,⁴⁾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는 “평양(平壤)은 고조선의 서울이다. (...) 송경(松京)에 부유한 집의 자제인 홍생(洪生)이 있었다”로 시작된다.⁵⁾ 이는 『만복사저포기』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도시를 서두에 내세우고 대체로 그곳의 거주자인 연소한 사인(士人)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데서 공통적이다.⁶⁾

그리고 이어지는 저마다의 세부적 서술에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비정하고 주인공의 주소까지 특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자면, 『금오신화』의 이러한 일관된 도입부 구성 방식은, 작품에 재현된 시공, 특히 배경이 된 도시에 초점을 두어 각각의 소설에 대해 역사지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학지리학의 방법론을 적용해 시도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은, 개성과 경주, 남원과 같은 한반도의 유서 깊은 도시에 『금오신화』와 결부된 독특한 장소성을 부여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⁷⁾

1) “南原有梁生者.” 박희병 표점·교석, 『萬福寺携蒲記』,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사, 2005. 99면. 이하 본문에서 인용하는 『만복사저포기』의 원문은 이 책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삼는다.

2) “松都有李生者.” 박희병 표점·교석, 『李生窺牆傳』, 위의 책. 115면.

3) “慶州有朴生者.” 박희병 표점·교석, 『南炎浮洲志』, 위의 책. 132면.

4) “松都有天磨山, (...) 前朝有韓生者.” 심경호 역주, 『龍宮赴宴錄』,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277면.

5) “平壤 古朝鮮國也, (...) 松京有富室洪生.” 심경호 역주, 『醉遊浮碧亭記』, 위의 책. 266면.

6) 단 『취유부벽정기』는 개성에 거주하는 홍생이 인근 도시인 평양을 방문하는 설정이므로 약간 차이가 있다.

7) 이는 『금오신화』가 각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된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과 분위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이 현존하는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덴마크의 크론베르크 성을 방문했을 때 나눈 다음의 이야기가 참조된다: “여기에 험릿이 살았다고 상상하자마자 이 성이 다르게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 이 성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성벽과 성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성의 안마당은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되고, 어두운 모퉁이는 우리에게 인간 영혼의 어두운 면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우리는

본고에서는 『금오신화』 수록작 중 전라북도 남원시를 배경으로 한 「만복사저포기」를 자료로 삼아, 김시습의 소설에 재현된 시공의 역사지리적 구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⁸⁾ 이를 위해 「만복사저포기」에 언급된 지명을 고증하여 해당 장소를 비정하고, 그 장소를 바탕으로 그려낸 주인공의 구체적인 동선을 소설의 서사와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만복사저포기」의 장소에 함축된 서사적 의미 맥락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아울러 소설가 김시습의 작가의식을 이해하는 데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만복사저포기」(萬福寺耨蒲記)에 재현된 시공(時空)의 역사지리적 특성

1455년, 서울 삼각산 중흥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중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들은 21세의 김시습은 그 길로 절을 뛰쳐나왔다. 이듬해 사육신(死六臣)의 시신을 수습해 노량진에 묻고 난 그는 실로 긴 여행을 시작했다. 1458년에 관서(關西) 지방을, 1460년에 관동(關東) 지방을, 1461년과 1462년에 호남(湖南) 지방을 유람하며 20대 후반을 길에서 보낸 그는 자신의 여행 체험을 각각 『유관서록』(遊關西錄), 『유관동록』(遊關東錄), 『유호남록』

바로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하는 햄릿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누구나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던지게 했던 질문, 그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인간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지구상의 한 장소, 여기 크론베르크 성에서 발견되어야만 했죠.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게 되자 크론베르크 성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이 되는 거죠.”(이 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15~16면)

- 8) 김시습 소설이 지닌 중요한 미덕 중 하나로, ‘역사지리적 구체성의 재현을 바탕으로 한 개연성’을 꼽을 수 있다. 김시습의 소설은 ‘죽은 여인과의 사랑’과 같은 설정이 보여주는 그 뚜렷한 환상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반도에 거주한 사람들의 구체적 삶을 역사지리와 결부하여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개연성과 진정성을 가지며 그 점은 지금 한국문학의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공감하며 수용하는 이유가 된다. 자세한 점은 김하라,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한문교육연구』 55집, 2020) 참조. 이 논문에서는 여성 주인공인 최씨의 무덤이 개성 오관산(五冠山)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곳을 고려 효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노래인 「오관산곡」(五冠山曲)과 연결지어, 유독 오관산을 최씨의 영혼이 깃든 마지막 장소로 설정한 김시습의 작가적 의도를 이해하고자 했다.

(遊湖南錄)이라는 시집으로 엮었다. 호남 유람을 마친 직후인 1463년, 29세의 김시습은 경주 금오산(金鰲山)에 머물기 시작했고, 31세 되던 1465년 그곳에서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저술했다.⁹⁾ 이에 이 책에 수록된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관서의 개성과 평양, 호남의 남원, 그리고 영남의 경주는 오랜 여행지이자 우거처(寓居處)라는 점에서 소설가 김시습의 실존과 이어져 있다.

특히 남원은, 경주로 건너가기 직전 28세의 김시습이 머문 호남의 고을이다. 따라서 이곳을 배경으로 삼은 「만복사저포기」에는 그가 실제 그곳을 답사하며 얻은 경험이 더욱 생생히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김시습의 『유호남록』에 수록된 시 「남원 광한루 위에서 피리 소리를 듣다」(南原廣寒樓上聞笛)를 참조할 수 있다.

客館蕭條車馬稀, 쓸쓸한 객관에 거마(車馬) 드문데
小樓高壓夕陽輝. 높다란 저녁 햇빛은 작은 누각을 누른다.
一聲長笛人如玉, 한 줄기 긴 피리 소리는 옥인(玉人)이 부는 건가
恰是姮娥奏羽衣. 향아가 연주하는 「우의곡」(羽衣曲) 같네.¹⁰⁾

광한루는 조선 초기에 ‘광통루’(廣通樓)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 이후 민공(閔恭)과 유지례(柳之禮) 등이 개건하고 보수했으며, 갑자년(1444)에 정인지(鄭麟趾, 1396~1478)가 ‘광한루’로 개칭했다.¹¹⁾ 김시습은 이 누정에 ‘광한루’라는 이름이 붙은 지 근 20년이 된 시점에 그곳을 방문했다.

광한루의 장소적 특성 중 가장 기억해 둘 만한 사항은, 이 누정이 만복사에서 불과 1.5km 거리라는 점이다. 즉, 남원의 광한루를 찾은 김시습이 그 인근의 만복사에 들르지 않았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러므로 광한루에 제한 이 시는 만복사를 답사한 김시습의 경험이 「만복사저포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리라는 추정의 한 근거가 된다. 게다가 셋째 구의 ‘피리 부

9) 정길수, 「김시습 연보」, 『길 위의 노래』, 돌베개, 2006. 268면.

10) 김시습, 「南原廣寒樓上聞笛」, 『梅月堂詩集』 卷11

11) “廣寒樓, 黃守身記, 府南二里許, 地勢高平敞閣有小樓曰廣通, 歲久頽廢, 歲甲寅府使閔君恭改起新樓, 丁巳柳君之禮繼加丹雘, 甲子河東鄭相國麟趾易名以廣寒.” 『龍城誌』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402_00)

는 옥인(玉人)의 형상은 『만복사저포기』의 첫머리에서 남주인공 양생(梁生)이 읊은 시의 의경(意境)과 연결되어 있다. 운명의 상대를 회구하던 양생은 “어느 곳에서 옥인이 봉소(鳳簫)를 부는가”¹²⁾라고 하여, 자신이 꿈꾸는 사랑을 옥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의 형상과 그가 부는 피리 소리로 상상했다. 광한루의 김시습과 만복사의 양생을 이어주는 이 시구(詩句)는 김시습의 호남 여행을 『만복사저포기』의 창작과 연결짓는 한 실마리가 된다.

본 장에서는 호남의 읍지와 고지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복사저포기』의 서사적 배경이 되는 장소를 비정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 『유호남록』에 형상화된 김시습의 여행 체험을 참고로 삼고자 한다.

1. 남원(南原)과 만복사(萬福寺)

남원(南原)은 옛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이다. 후한(後漢) 건안(建安) 연간에 대방군(帶方郡)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신라에 병합된 후 신문왕(神文王) 4년에 이곳에 소경(小京)을 두었으며, 경덕왕(景德王) 때 ‘남원(南原)’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소경의 지위는 계속 유지했다. 고려 태조 23년에 ‘남원부’로 고쳤고, 충선왕(忠宣王) 2년에 다시 대방군이 되었다가 그 뒤 다시 ‘남원군’으로 고쳤으며, 공민왕(恭愍王) 9년에 ‘남원부’로 승격했다. 조선 태종 13년에 ‘남원도호부’로 고쳤으며 세조 때 진(鎭)을 두었다.¹³⁾

이처럼 남원은 신라 5소경의 하나였고 고려시대에는 부(府)의 지위를 지켰으며 조선 건국 이후 도호부(都護府)로 한층 승격되고 군사적 요충지로 진이 설치되기도 하는 등, 김시습이 그곳을 방문한 15세기 중반과 그 이후까지 한반도에서 상당한 지리적 중요성을 갖는 유서 깊은 고을로 존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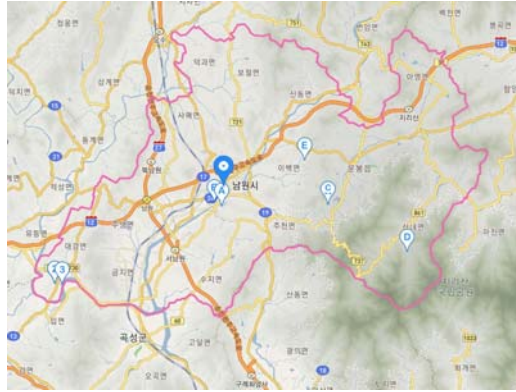
12) “何處玉人吹鳳簫” 박희명 표점·교석, 앞의 책, 99면.

13) “本府古百濟 古龍郡, 後漢 建安中爲帶方郡, 曹魏時爲南帶方郡, 後唐 高宗遣蘇定方滅百濟詔 劉仁軌檢帶刺史, 未幾新羅 文武王并其地, 神文王四年置小京, 景德王改今名, 仍爲小京. 高麗 太祖二十三年改爲府, 忠宣王二年復爲帶郡, 後爲改爲南原郡, 恭愍王九年復陞爲府. 本朝太宗 朝十三年例改都護府, 世祖朝始置鎭.”

『南原邑誌』(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401_00)



<그림 1> 남원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광여도>



<그림 2> 2023년 현재 남원시 권역. 과거 남원부의 고달방이 곡성군 고달면으로, 산동방이 구례군 산동면으로 각각 편입됨

동쪽으로는 지리산(智異山)이 내리누르고 있고, 서쪽으로는 중진(中津)이 두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요천(蓼川)이 지나가고, 북쪽으로는 교룡산(蛟龍山)을 띠고 있는 입지 조건 가운데, 남원은 비옥한 들이 백 리나 이어지는 천부(天府)의 풍요로운 땅으로 여겨졌다.¹⁴⁾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광여도>(廣輿圖)를 참조하면 남원은 남쪽으로 구례현과 곡성현, 서쪽으로 순창군 및 옥과현, 북쪽으로 임실현 및 장수현 등 인근 고을과 맞닿아 있다.¹⁵⁾ 그리고 이 고을에는 북쪽의 둔덕방(屯德坊)과 오지방(吾枝坊)으로부터 서쪽의 기지방(機池坊), 남쪽의 고달방(古達坊)과 산동방(山洞坊)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방리(坊里)가 소속되어 있었다.

현재의 남원시는 과거 남원부의 지리적 권역을 대체로 계승하고 있어, 서쪽 끝인 남원시 산내면에 지리산 국립공원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시의 경계는 여전히 전라북도 순창군과 임실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 등과 맞닿아 있다. 다만 과거 남원에 속했던 고달방과 산동방

14) 東控智異, 西帶中津, 南經蓼川, 北帶蛟龍, 沃野百里, 天府之地.
『南原邑誌』(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401_00)

15) 東至雲峯縣界三十里, 至慶尙道 安義縣界一百里, 南至求禮縣界五十里, 至谷城縣界三十三里, 西至淳昌郡界三十七里, 至玉果縣界六十二里, 北至任實縣界五十里, 至長水縣界六十里, 北距京都六百三十里七日程, 北距監營一百三十里一日半程.
『南原邑誌』(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401_00)

이 각각 곡성군 고달면과 구례군 산동면으로 되었는데, 이는 현대 한국의 독자가 『만복사지포기』의 배경이 되는 남원부의 범위를 상정할 때 감안할 사항일 터이다. 그러나 이 약간의 변화를 제외한다면, 현재의 남원시는 김시습이 여행하고 소설의 공간으로 삼은 남원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3> 남원부 일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해동지도>



<그림 4> 만복사지(전북 남원시 왕정동)

한편 남원의 중심부인 읍성의 서문 밖에 자리잡은 만복사(萬福寺)는 읍지 등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찰로서 고을을 대표하는 위상을 가졌다. 만복사가 속한 방리의 이름이 ‘만복방’(萬福坊)인 점도 해당 사찰의 오랜 존재감을 방증한다. 이러한 만복사의 입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반적인 절과 달리 외만 산속이 아니라 민가가 밀집되어 백성들로 북적거리는 읍성과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성지』(龍城誌)에 따르면 만복사는 기린산(麒麟山) 아래 남원부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었다. 고려 문종(文宗, 재위 1046~1083) 때 창건된 이 절에는 5층의 동쪽 전각과 2층의 서쪽 전각이 있었으며 이 중 한 전각 안에 높이 35척의 동불(銅佛)이 있었다 한다.¹⁶⁾

『용성지』에 기록된 창건 연대는, 만복사에 현전하는 석불입상, 오층석탑, 석조대좌 등 3기의 유물이 모두 11세기 고려 미술의 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점에 상응한다. 또한 비교적 평화로웠던 11세기에 이르러 지방의 호장층

16) 萬福寺在麒麟山下，東有五層殿，西有二層殿，殿內有銅佛長三十五尺，高麗 文宗時所創。(…)
『新增』在府西三里。『龍城誌』(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402_00)



<그림 5> 만복사지. 도로가 가로질러 나뉘었음

(戶長層)을 중심으로 자복사(資福寺)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보고되는데, 당시 창건된 만복사의 입지와 규모는, 고을의 중심 공간으로서 불교 의례를 수행하거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되곤 한 자복사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한다.¹⁷⁾ 이에 11세기부터 남원 고을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소망을 포용해 온 만복사의 오랜 존재

의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만복사의 역사적 위상은 14세기를 배경으로 한 『만복사저포기』에서 그곳이 주인공 남녀의 기원을 받아 안아 주던 장소인 점에 상응할 뿐이 아니다. 이 절은 17세기 남원을 배경으로 한 조위한(趙緯韓, 1567~1649)의 소설 『최척전』(崔陟傳)에서도 주인공 남녀의 기원을 담은 공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바 창건 이래의 장소성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⁸⁾

한편 『용성지』에는 18세기 초의 상황도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만복사는 정유재란(1597) 때 병화(兵火)의 피해를 입어 대웅전(大雄殿), 약사전(藥師殿), 장육전(丈六殿), 영산전(靈山殿), 보응전(普應殿), 종각(鐘閣), 천불전(千佛殿), 나한전(羅漢殿), 명부전(冥府殿) 등의 건물이 모두 타버렸고, 오직 전각 한 칸과 석불 한 기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1678년에 남원 부

17) 陳政煥, 『南原 萬福寺址 佛教美術品 造成과 그 背景』, 『전북사학』 61집, 2021. 33~59면.
 18) 『최척전』의 주인공 최척과 이옥영 부부는 매달 초하루 만복사에 가서 아이를 내려 달라고 기도를 올렸고, 만복사 장륙불의 응답을 얻어 아들 몽석을 낳았다. 이후로도 만복사 장륙불은 위험에 처한 이옥영의 꿈에 나타나 그를 지켜 주었다(조위한 저, 박희병·정길수 역, 『최척전』,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또한 『최척전』의 시대에 정유재란을 겪으며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 고을 사람들에게 만복사가 갖는 자복사로서의 의미는 최근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1979년부터 시작된 만복사지의 발굴에 초창기부터 참여한 고고학자 윤덕향은, ‘정유재란으로 만복사의 모든 건물이 불타고 석불 입상 하나만 남은 상태가 20세기까지 지속되었으나, 본격적 발굴조사가 시작된 1980년대까지도 그 석불 입상 앞에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와 촛불을 켜 놓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2020년 10월 23일 남원시와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만복사지 조사 성과와 과제’ 중 윤덕향 교수의 발표 ‘만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HDiNggcg-s4&t=659s)

사 정동설(鄭東高)이 승방(僧房) 둘을 증창하고 토박이 승려를 시켜 남은 터를 지키도록 했다.¹⁹⁾

정유재란 이후의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진바 석불을 모신 전각 한 채와 몇몇 석물을 제외하고는 빈터만 남았고 그나마 도로가 가로질러 가운데가 잘린 상태지만, 소실된 9개 전각의 이름들을 통해 김시습이 방문한 1462년 무렵 만복사의 규모와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림 6> 기린산 방향으로 본 만복사지. 오른쪽으로 석불이 모셔진 전각과 5층석탑이 있음.
2020년 9월 27일 촬영.

만복사의 터는 기린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툭 튀어 있는데, 햇빛이 무척 잘 들어 밝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장소다. 게다가 동쪽과 남쪽이 멀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넓은데도 황량하지 않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다.

특히 이곳에서 동쪽을 향하면 지리산의 능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만복사의 장소성은 “양생(梁生)은 그 뒤 다시 혼인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는데 끝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다”²⁰⁾고 한 『만복사저포기』의 마지막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의미심장하다. 경관과 지리라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만복사저포기』의 서사가 시작되는 남원의 만복사지라는 현존하는 장소는 지리산을 향해 열려 있는 그 쓸쓸한 결말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19) 丁酉倭亂蕩盡無餘，只有一間八雀一殿，中有石佛，大雄殿藥師殿丈六殿靈山殿普應殿鍾閣千佛殿羅漢殿冥府殿等屋，但有遺址。府使鄭東高戊午年間重創二房，以土着僧居守成規。

『龍城誌』(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402_00)

20) “生後不復婚嫁，入智異山採藥，不知所終。”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13면.



<그림 7> 만복사에서 보이는 지리산 능선(확대). 2023년 7월 31일 촬영



<그림 8> 만복사지. 동쪽 멀리 지리산이 보임.
2023년 7월 31일 촬영

2. 남주인공 양생(梁生)의 처지와 거주지

『만복사저포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남원 사람이다. 남주인공 양생(梁生) 또한 그렇다. 소설의 서두에서는 그의 구체적 처지와 내면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아직 아내도 얻지 못한 채 홀로 만복사의 동쪽에 살았다. 그의 방 밖에는 배나무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이라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옥구슬 나무에 은가루가 쌓인 것 같았다. 양생은 달밤이면 그 아래를 서성이며 시를 읊조렸다.²¹⁾

‘생’(生)이란 ‘학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한문소설의 맥락에서는 일반적으로 ‘젊은 선비’를 가리킨다.²²⁾ 그러므로 ‘양생’(梁生)은 양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다.

그런데 김시습은 왜 이 지식인 남성에게 ‘양’(梁)이라는 성씨를 부여했을까? 이 점은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남원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남원읍지』의 성씨(姓氏) 조에 가장 먼저 등재된 성이 남원을 본관으로 하는 ‘양씨’(梁氏)이기 때문이다.²³⁾ ‘남원양씨’(南原梁氏)는 남원의 유력한 토성(土姓)으로 꼽히는데, 집현전 학사로 잘 알려진 양성지(梁誠之, 1415~1482)가 남원에 세거한 남원양씨로 대표적이다. 김시습의 교유인물이자 유력한 관료문인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남원군’(南原君) 양성지를 자신의 좌주(座主)로 일컬었던바²⁴⁾ 김시습도 자신의 동시대인인 이 학자와 그의 관향을 알았을 터이다. 요컨대 ‘양생’은 남원의 유력 성씨인 ‘남원양씨’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그가 지닌 일정 수준의 지위를 함축한다. 또한 이로부터 남원 고을을 대표하는 청년으로 남주인공을 설정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도 있다.²⁵⁾

양생이 남원양씨로 추정된다는 점은, 소설 『만복사저포기』의 인물 형상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 여겨진다. 『만복사저포기』를 제외한 『금오신화』 수록작의 네 남주인공은 ‘이생’(李生), ‘박생’(朴生), ‘홍생’(洪生), ‘한생’(韓生)인데, 이들은 모두 젊은 지식인 남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21) 南原有梁生者, 早喪父母, 未有妻室, 獨居萬福寺之東. 房外有梨花一株, 方春盛開, 如瓊樹銀堆. 生每月夜, 逡巡徘徊其下.

22) 중국 瞿佑의 『剪燈新話』에 실린 『秋香亭記』의 남주인공이 ‘商生’이고, 베트남 阮岫의 『傳奇漫錄』에 실린 『麗娘傳』의 남주인공이 ‘李生’인 점이 참고된다.

23) 『南原邑誌』(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401_00)

24) 서거정, 『通津縣大浦谷梁判書別墅落成記』, 『四佳集』 卷2. “通之屬縣, 曰守安, 地濱海, 土皆肥衍, 有山水之勝魚稻之饒, 吾座主南原君別墅在焉.

25) 김시습의 다른 소설인 『이생규장전』에는 송도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청춘남녀인 이생과 최씨의 모습이 공들여 그려져 있다.

‘양생’과 같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인 계급으로 보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지닌 그들의 형상은 그에 상응하는 품성과 문재(文才)를 드러내는 언사와 작시(作詩)로 구체화된다.



<그림 9> 남원시 왕정동 만복사지에 설치된 안내 만화. 일반에 알려진 양생의 왜곡된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줌. 2023년 7월 31일 촬영

한편 다섯 남주인공 중 양생의 사회적 처지는 유독 불우하다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외로운 처지가 도드라진 탓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생의 불우함은 『금오신화』의 초기 역주본에서 “獨居萬福寺之東房”으로 구두를 끊고 그가 만복사의 동쪽 방에 거주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증폭되었다.²⁶⁾ 이에 양생은 대체로 ‘만복사의 골방에서 더부살이하는 노총각’으로 그려졌고, 이는 양생의 처지가 『금오신화』의 나머지 네 남주인공에 비해 유독 열악하다고 받아들여지게 한다. 초기 번역의 이런 설정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독서 대중의 『만복사저포기』 수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최근의 여러 번역에서도 해당 구절은 대체로 “일찍 아버지를 여윈 데다가,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와 같이 번역되었고, 청소년 독자들을 위해 손질된 십여 종의 『금오신화』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초기의 번역에 따라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가지 못한 채 만복사

26) 『愼獨齋傳奇集』 수록본 『만복사저포기』에 이 부분이 “獨居萬福寺之東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금오신화』 독자들이 양생의 거주지를 만복사의 경내라고 여기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라는 절의 동쪽 골방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남원의 대표적 토성인 양씨를 환기하도록 남주인공의 성씨를 부여한 작가의 의도와 부합하는 해석인지는 의문이다.

첨언하자면, 『이생규장전』의 국학 유생 이생이나, 『남염부주지』의 비판적 지식인 박생 등 『금오신화』에 수록된 소설의 남성 주인공에게는 작가 김시습의 형상이 일정 부분 투영되어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 동쪽 마을에 사는 독거 청년 양생의 형상은 김시습의 청소년기 모습과 겹치는 면이 있다. 15세에 어머니를 여윈 김시습은 서울을 떠나 있으며 외할머니

의 보살핌을 받았으나 곧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서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계모는 그를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림 11> 기린산 기습 만복사저 북동쪽 인근 마을. 양생의 주소를 이 근방으로 비정할 수 있을 듯함. 2023년 7월 31일 촬영



<그림 10> 남원성 서문 밖 만복사와 그 동쪽 양생의 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광영도>

당시 상황을 김시습은 ‘세상일이 어그러지고 각박하여 홀로 서울집에 있었’던 것으로 회고했다. 이렇게 10대 후반의 그는 거의 고아와 같은 처지였으며, 그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형제처럼 지내면서 그 시절을 버텨나갔던 중이었다.²⁷⁾ 당시 김시습은 부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가족이 아닌 사회

27) 至十五歲，慈母見背，鞠於外公婆。公婆以獨外甥，愛而有猶子焉，及丁母憂，率于農莊，不遺京都。守墳三年，未及終制，而公婆又繼捐世矣。鰥爺抱病，不能治家事，又得繼母，世事乖薄，獨於京舍，與相國之婿，仲善之父安信，池達河，鄭有義，張綱，鄭師周同學，相交猶兄弟焉。(김시습, 『上柳襄陽陳情書』, 『梅月堂集』 卷21)

적 관계가 그를 이끌어 주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그가 그려낸 양생의 처지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양생은 외롭기는 하나 비천한 처지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야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김시습의 생애 경험과 자아상이 『금오신화』의 인물 형상에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의지가 지 없는 가엾은 고아이자 절에서 더부살이하는 노총각으로 양생을 보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서 벗어난 해석이 될 우려가 있다.

한편, 근래 정유재란 무렵의 남원을 배경으로 한 조위한의 소설 『최척전』이 조명을 받게 되며, 양생의 거주지가 만복사 경내가 아니라 그 동쪽 마을이라는 점이 환기되었다.²⁸⁾ 『최척전』 서두의 “早喪母，獨與其父淑，居于府西門外萬福寺之東”²⁹⁾이라는 구절 중 “萬福寺之東”이 『만복사저포기』 첫머리의 언급과 겹치는 것이다. 이에



<그림 12> 양생의 집에 있던 배나무와 같은 수종일 것으로 추정되는 두월리 청실배나무(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방성길 22-14). 두월리는 남원양씨 집성촌이기도 함.

남원을 배경으로 한 걸출한 소설 두 편의 남주인공인 양생과 최척(崔陟)은 같은 주소를 갖게 되는데 이는 바로 남원부의 만복방(萬福坊)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원부 서문 밖 만복사 동쪽 마을’이다.

남원부의 서문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어 현전하지 않으나, 근방의 ‘서문사거리’와 같은 지명을 근거로 만복사와의 거리를 추정해 보면 약 1km다. 이는 읍지에서 만복사가 부 서쪽 3리에 있다고 한 것과는 부합한다. 그러므로 양생의 집은 남원성 서문과 만복사 사이, 반경 1km 이내의 마을인 만복방에 있었고, 특히 만복사와 대단히 가까웠다. 아름다운 달밤, 집 마당의 환히 핀 배꽃나무³⁰⁾ 아래를 서성이며 운명의 상대를 꿈꾸는 양생의 읊조림을

28)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99면.

29)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421면.

30) 이 장면에서 양생의 뜰에 있던 배나무를 상상할 때 완관본 『춘향전』에 언급된 ‘청실배’라는 도종 배나무 품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산돌배나무의 변종인 청실배나무는 한국특산종으로 청실리(靑實梨)라고도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와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가 남원 인근의 오래된 배나무로 유명하다(출처: <https://www.news-art.co.kr>).

들은 만복사 부처님이 “좋은 짝을 얻고자 한다면 걱정 말게. 이루어질 테니.”라고 바로 응답을 내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터이다.³¹⁾ 요컨대 양생은 만복사 부처님과 이웃사촌이었다.

3. 개령동(開寧洞), 이름 없는 여주인공의 거주지

달빛 속에 배꽃이 만발한 14세기 후반의 음력 3월 23일 밤, 남원의 외로운 청년 양생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할 운명의 짝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시를 읊었고, 이웃의 만복사 부처님은 걱정 말라는 하늘의 목소리를 보냈으며, 응답을 들은 양생은 기뻐다.

이튿날인 3월 24일, 만복사에서 연등회가 열렸다. 남원 고을의 남녀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소원을 빌고 돌아간 후 양생은 홀로 저포를 들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내기에서 이기면 아름다운 여인을 점지해 달라며 자신의 소원을 재확인한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여 이겼다.³²⁾

잠시 후, 불단(佛壇) 아래 숨어 부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양생의 눈앞에 선녀와 같은 초현실적인 미모를 지닌 여성이 나타났다. 열대여섯째 된 그 여성은 품속에서 글을 꺼내 불단 앞에 바쳤다.³³⁾ 이 글은 그 여성의 내력과 발원(發願)을 담은 기도문인데, 양생은 숨어서 그 여성을 지켜보는 중이므로 아직 그 글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양생이 보기에 앞서 독자에게 먼저 제시된 이 기도문은 그 여성과 관련된 심각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먼저 서두의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어떤 성씨의 아무개[某州某地居住何氏某]라는 자기소개는 이 여성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있음을 나타낸다.³⁴⁾

31) “吟罷，忽空中有聲，曰：‘君欲得好逑，何憂不遂？’”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00면.

32) “明日即三月二十四日也。州俗燃燈於萬福寺祈福，士女駢集，各呈其志。日晚，梵罷人稀，生袖楞蒲，擲於佛前曰：‘吾今日與佛欲鬪蒲戲，若我負則設法筵以賽，若佛負則得美女以遂我願耳。’祝訖，遂擲之。生果勝，即跪於佛前曰：‘業已定矣，不可誑也。’遂隱於几下，以候其約。”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00면.

33) “俄而有一美姬，年可十五六，鬢淡飾，儀容婣妙，如仙妹天妃，望之儼然，手携油瓶，添燈插香，三拜而跪，噫而歎曰：‘人生薄命乃如此邪！’遂出懷中狀詞，獻於卓前。”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00면.

34) 31세의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집필하며 자신이 20대 후반에 여행하거나 우거한 장소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고, 각각의 장소에서의 경험을 창작에 반영했다. 그 결과 『금오신화』에

자기가 어디의 누군지 드러내지 않은 채, 그는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왜구(倭寇)의 침입을 언급했다. 이 여성이 양생과 마찬가지로 남원 사람임을 감안한다면, 그가 겪은 왜구의 침입은 1379년 혹은 1380년에 있었던 일로 추측된다. 1379년 3월에는 왜적이 남원을 침입해서 판관(判官)을 죽이고 사흘간 머문 적이 있으며,³⁵⁾ 1380년에는 이른바 ‘경신년 왜구’를 토벌하는 전투가 지리산 일대에서 이루어졌을 때 남원이 격전지가 되었던 것이다.³⁶⁾ 당시 왜구의 분탕질과 노략질을 피해 가족과 종복들이 각자도생하는 가운데 몸이 약해 도망치지 못한 이 여성은 깊은 규방에 들어가 결국 정절을 지키고 횡역(橫逆)의 화를 피했다고 강조했다.³⁷⁾

그러나 이 여성이 왜구의 성폭력을 겪지 않고 살아남은 운 좋은 생존자였는지는 미지수다. 『맹자』(孟子)에 보이는 ‘횡역’이란 말은 ‘당연한 이치에 어그러진 상태에 있음’이라는 뜻으로,³⁸⁾ ‘횡역을 피했다’는 것은 이 여성이 운

재현된 공간은 개연성 있는 지명과 인명이 세심히 사용되어 상당히 구체적이다. 예컨대 『이생규장전』에서는 신축년(1361) 홍건적의 침입으로 함락된 개성이 중요한 소설적 공간이 되는데, 이때 희생된 최씨의 부모와 시부모를 장사지낸 곳이 개성 오관산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생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다 영영 이별한 최씨의 유해를 부모님 곁에 장사지냈다고 했으므로, 최씨의 무덤이 있는 곳 역시 오관산이 된다. 김시습은 관서지역을 여행할 때 오관산을 찾아가 보았고 이 산에 얽힌 효자 이야기와 그의 노래를 기리며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의 이런 경험이 『이생규장전』의 창작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주인공의 성씨도 당시의 명문거족에 합당하도록 ‘최씨’로 설정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개성에 세거한 고려의 유력한 가문인 최충(崔沖)의 해주최씨(海州崔氏)나 최영(崔瑩)의 동주최씨(東州崔氏) 등을 연상시키는 설정이다. 이처럼 작가 김시습은 소설 속 인명과 지명이 개연성을 갖도록 하는 데 상당한 배려를 기울였다고 판단되며, 『만복사저포기』에서처럼 ‘某’와 ‘何’라는 말로 여주인공의 신원을 감춘 것은 어떤 의도의 산물이라 여겨진다.

35) “왜적이 순천, 조양(兆陽), 진원(珍原) 등지에 침입하여 왔으므로 정지(鄭地)가 적과 싸우다가 패전하였다. (...) 3월에 지문하사 우인렬로 경상도 상원수를 임명하고 밀직부사 목자안으로 전라도 부원수 겸 도순문사로 임명하였다. (...) 왜적이 곡성에 침입하고 또 남원에 침입해서 판관(判官)을 죽이고 3일간 있었으며 또 순천부(順天府)에 침입하였다.” 『고려사』 신유기미 5년(1379)

36) 이영, 『왜구, 고려로 번진 일본의 내란』, 보고서, 2020. 232~234면.

37) 왜적의 침입 때 항거하여 정절을 지킨 이 남원 여성의 형상은 역사적 전형성을 갖는다. 읍지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고려 때 남원의 생원 양중수(梁仲粹)의 처인 이씨(李氏)는 왜적이 범하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다가 마침내 왜적에게 살해되었고 이 일이 알려져 정려되었다(高麗 李氏, 生員梁仲粹妻也. 倭賊欲汚之, 李不從, 遂爲賊所害, 事聞旌閭).

38) 『맹자』(孟子) ‘이루’ (離婁) 하(下)에 “어떤 사람이 횡역(橫逆)으로 대할 때 군자(君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어질지 못하였거나 예가 없었나 보다.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한다. 스스로 반성하여 어질며 또 예가 있었는데도 그 횡역함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다시 반성하여 ‘내가 충실치 못하였나보다.’ 한다. 또 다시 반성하여 충실하였는데도 그 횡역

리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정절을 지킨 사실을 지시한다. 따라서 이 말만으로는 목숨을 부지했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난리를 겪은 뒤 딸의 ‘수절’(守節)을 좋게[不爽] 여긴 부모는 외지고 구석진 초야(草野)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혼자 지내도록 했는데, 이 후속조처도 의문을 자아낸다.³⁹⁾

굳이 자신의 신원을 감춘 이 여성은, 자신이 왜구의 침략을 겪었으나 정절을 지켰고, 그 이후 초야에 홀로 거처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력을 파고들어가면 그가 3년 전 왜구 침략의 희생자로서 이미 죽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의심은 양생에 앞서 기도문을 읽는 독자의 몫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미모의 여성이 제 눈앞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데 마음이 쏠린 양생은 아직 그런 내력을 읽을 수 없다. 게다가 숨어서 그 여성의 자태와 용모를 옛보다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불쑥 튀어나온 양생은 그 기도문을 급히 읽어 보고도 그런 내력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의 발원, 즉 ‘오랫동안 외로웠던 나에게 미리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어서 만나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 달라’는 그 여성의 소망이 자신의 바람과 완전히 겹친다는 점만 파악하여 그저 기뻐할 뿐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양생의 질문에 여주인공은 “저도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심하시나요? 그대는 다만 좋은 짝을 얻으면 될 뿐 이름이나 성씨 같은 건 물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라고 응수한다. 아직 양생은 의심을 품은 기색이 없으나 여주인공은 의심을 지레 걱정하고 ‘저도 사람’이라며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이름이나 성씨 같은 건 물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라는 여주인공의 말은, 기도문 서두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모두 감추었던 것과 호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말들을 통해,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

함이 전과 같으면 굳자는 ‘저 사람은 망녕된 사람일 뿐이다.’ 한다. 그런 사람은 금수(禽獸)와 무엇이 다르랴. 금수와 무엇을 힐난하겠는가?” 하였다.

39) “其詞曰：‘某州某地居住何氏某，竊以曩者，邊方失禦，倭寇來侵，干戈滿目，烽燧連年，焚蕩室廬，虜掠生民，東西奔竄，左右通逃，親戚僮僕，各相亂離。妾以蒲柳弱質，不能遠逝，自入深閨，終守幽貞，不爲行露之沾，以避橫逆之禍。父母以女子守節不爽，避地僻處，僑居草野，已三年矣。然而秋月春花，傷心虛度，野雲流水，無聊送日，幽居在空谷，歎平生之薄命，獨宿度良宵，傷彩鸞之獨舞。日居月諸，魂銷魄喪，夏夕冬宵，膽裂腸摧。惟願覺皇，曲垂憐愍。生涯前定，業不可避，賦命有緣，早得歡娛，無任懇禱之至。’”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00~101면.

도 인간의 윤리를 중시하여 정절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은 훌륭한 여성으로서 거짓말을 하기는 꺼리는 여주인공의 슬프고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다.⁴⁰⁾ 요컨대 자신의 신상정보를 감추려는 여주인공의 태도는 그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심각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양생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모순된 마음 및 처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양생은 그 여자와 함께 불전(佛殿)을 나와 낭무(廊廡: 중심 전각에 딸린 겹채) 끝의 구석진 판방(板房: 마루방)으로 가 사랑을 나누었다.⁴¹⁾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나타난 시녀가 만복사 뜰에 술상을 차렸는데 사용한 자리며 탁자 등은 소박하며 아무 무늬가 없었고 향기로운 술은 인간세상의 맛이 아니었다. 양생은 무언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고 의심이 들었지만 자기 앞의 그 여자가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라든가 몸가짐과 태도가 맑고 아리따운 우아해서 그저 귀한 집 처자가 몰래 집을 나온 것이겠거니 여기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⁴²⁾

달이 지고 닭이 울고 만복사의 첫 종이 울려 날이 밝아올 때, 그 여자는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함께 손 잡고 가자’며 자신의 거처로 양생을 데려가려 했다. 양생은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새벽의 동리를 걸어갔다. 그 여자를 보지 못하는 동리 사람들은 그저 양생에게 ‘일찍부터 어딜 가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양생이 ‘마침 취해서 만복사에서 누웠다가 친구 집으로 간다’고 둘러댄 것을 보면, 그는 이미 그 여자가 자신과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리를 벗어난 그는 그 여자의 손을 놓지 않고 이슬이 잔뜩 내린 풀숲과 산속의 길 아닌 길을 즐거이 따라갔다. 두 사람은 『시경』(詩經)을 인용한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침나절의 숲길을 걸어 개령동(開寧洞)⁴³⁾에 도착했다. 조그맣고 화려한 그 여자네 집은 축대로 뒤덮인 들판,

40) “女旣投狀，嗚咽數聲。生於隙中，見其姿容，不能定情，突出而言曰：‘向者投狀爲何事也？’見女狀辭，喜溢於面，謂女子曰：‘子何如人也，獨來于此？’女曰：‘妾亦人也，夫何疑訝之有？君但得佳匹，不必問名姓，若是其顛倒也？’”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01면.

41) “時寺已頽落，居僧住於一隅，殿前只有廊廡蕭然獨存，廊盡處有板房甚窄。生挑女而入，女不之難，相與講歡，一如人間。”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01면.

42) “將及夜半，月上東山，影入窻柯，忽有登音。(…)侍兒一如其命而往，設筵於庭，時將四更也。鋪陳几案，素淡無文，而醞體馨香，定非人間滋味。生雖疑恠，談笑清婉，儀貌舒遲，意必貴家處子踰牆而出，亦不之疑也。”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01~102면.

가시나무가 하늘로 치솟은 그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간밤의 술자리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의 잘 정돈된 침구와 화장이 갖춰진 개령동 집에서 양생과 그 여자는 행복한 사흘을 보냈으며, 양생은 그 여자와의 즐거움이 보통 사람 사이에서의 육체적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다. 시녀 아이에게 약은 기색 한 점 없는 것이나 기명(器皿) 등이 깨끗하고 아무 무늬가 없는 것을 보면 그곳이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스쳤지만, 이제는 영육(靈肉)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워져[繼繼意篤] 더 이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⁴³⁾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양생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이후 양생은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의심을 품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켰다.

그러므로 개령동은 『만복사저포기』에서 만복사만큼이나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우선, 양생의 주소가 만복사 동쪽 마을 배나무가 있는 집인 것에 상응해, 쑥덤불과 가시나무가 우거진 산골짜긴 개령동은 여주인공이 속한 공간으로 주목을 요한다.

또한 개령동은 소설의 서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갖는다. 1379년 혹은 1380년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음력 3월 24일 저녁에 양생은 만복사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을 만나 함께 밤을 보냈고, 다음날인 3월 25일 새벽에 그와 함께 걸어 개령동의 작고 화려한 집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행복한 사흘을 보냈다. 양생은 3월 28일경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나 보련사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를 영영 떠나보냈으므로, 양생이 그 여자와 함께 한 시간은 길어

43) 이 지명은 경북 김천의 개령(開寧)과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 ‘寧’의 음은 ‘녕’과 ‘령’ 둘인데 ‘開寧’의 경우 ‘령’으로 읽는 것이 관행이다. ‘金寧’의 경우 ‘녕’으로 읽는다.

44) “時月掛西峯，鷄鳴荒村，寺鐘初擊，曙色將暝。女曰：‘兒可撤席而歸。’隨應隨滅不知所之。女曰：‘因緣已定，同携手歸。’生執女手，經過閭閻，犬吠於籬，人行於路，而行人不知與女同歸。但曰：‘生早歸何處？’生答曰：‘適醉臥萬福寺，投故友之村墟也。’至詰朝，女引至草莽間，零露漙漙，無逕路可遵。生曰：‘何居處之若此也？’女曰：‘孀婦之居，固如此耳。’女又諶曰：‘厭浥行露，豈不夙夜，謂行多露。’生又諶之曰：‘有狐綏綏，在彼淇梁。魯道有蕩，齊子翱翔。’吟而笑傲。遂同去開寧洞。蓬蒿蔽野，荊棘參天，有一屋小而極麗。邀生俱入，衲衲帳幃極整，如昨夜所陳。留三日，歡若平生。然其侍兒美而不黠，器皿潔而不文，意非人世，而繼繼意篤，不復思慮。”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04면. 한편 여주인공과 관련된 집기 등이 깨끗하고 아무 무늬가 없다는 말은, 무덤에 부장된 명기(明器)를 대체로 무늬 없이 희게 만드는 풍습에 상응한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여러 종의 백자소문명기(白磁素文明器)가 참조된다.

야 닷새인데 그중 사흘을 개령동에서 보낸 것이다. 게다가 양생은 그를 떠나보낸 뒤 이곳 개령동을 찾아와 그 화려한 집이 실은 그의 무덤이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개령동의 이러한 공간적 성격은,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버드나무로 에워싸인 개성 선죽리 최씨 저택이 낙타고 옆 이생의 집보다 비중이 큰 서사 공간이라는 점에 비견할 수 있다.⁴⁵⁾ 선죽리 최씨 저택은 이생과 최씨가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된 장소로, 이후 홍건적의 침입 때에도 불타지 않고 남아 있었기에, 혼자 살아남은 이생은 저세상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내 최씨와 이곳에 함께 머물며 두 번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개령동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이 소설의 서사 공간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⁴⁶⁾ 우선 『만복사저포기』 안에서는, 새벽에 만복사를 출발한 두 사람이 인적 드문 숲길을 지나 개령동에 도착했다는 앞의 언급 외에 다음 두 구절이 더 참조된다.

① 개령동 속에서 봄 시름 안고

꽃 지고 꽃 피니 온갖 근심 느끼네.⁴⁷⁾

② “나에겐 다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도적의 난리를 당해 창칼에 찔려 죽었소. 제대로 장사를 치르지 못해 개령사(開寧寺) 골짜기에 초민(草殞)해 둔 채로, 이렇저렇 장례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소.”⁴⁸⁾

①은 여주인공이 읊은 시의 한 구절이다. 양생이 개령동을 떠나기 전, 그 여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남원의 곳곳에 묻혀 있던 처녀들인 정씨(鄭氏)와 오씨(吳氏), 김씨(金氏)와 유씨(柳氏)를 불러 함께 이별연을 열었다.⁴⁹⁾ 이 처녀들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탄식하거나 혹은 양생과 여주인

45) 『이생규장전』의 장소들에 대해서는 김하라, 앞의 논문 참조.

46) ‘개령동’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나온 남원의 속현인 ‘거령(去寧: 전북 임실군 지사면)이리라는 추정이 통용되었고, 최근 견수산(犬首山) 개량사(開良寺)가 개령사일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으나(신희경, 『『만복사저포기』 공간의 지리적 특성과 의미』, 『은지논총』 73집, 2022) 본고에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

47) “開寧洞裏抱春愁, 花落花開感百憂.”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08면.

48) “吾止有一女子, 當寇賊傷亂之時, 死於干戈, 不能窆, 殯於開寧寺之洞, 因循不葬, 以至於今.”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10면.

공의 인연을 축복하는 시를 차례로 읊었는데, 친구들의 시를 듣고 감동한 여주인공이 개령동에서 세 번째 봄을 보내는 마음을 위와 같이 읊은 것이다. 그 여자는 같은 시에서 가을날 부채처럼 버림받을까 두렵다고도 했는데 [莫將紈扇怨清秋], 이에 양생은 “영원히 우리 하나 되어 / 꽃 앞에서 달 아래서 헤어지지 말자”[世生生爲配耦, 花前月下相盤桓]는 시로 답했다.

②는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한 말이다. 그에 따르면 개령동은 한 명문대가의 외동딸이 가매장된 장소, 즉 그 여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개령사(開寧寺) 골짜기’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개령동이 ‘개령사’라는 절이 있는 곳 근방의 산골짜기임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13> 만복사에서 개령동 추정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근방에 황령사가 있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여지도>

전근대시기 남원의 읍지나 지도에는 이와 일치하는 지명이나 사찰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한 폐사지에 ‘개령암(開嶺庵)이라 하여, 한자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를 갖는 이름이 붙어 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번지의 ‘남원 개령암지’가 바로 그곳이다.⁴⁹⁾ 여기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상군(보물 1123호)과 절터가 남아 있다. 개령암은 조선후기에 이미 폐사되어 고지도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사찰로 기록에 남아 있는 황령사(黃嶺寺)⁵¹⁾가 ‘황령암(黃嶺庵)으로 일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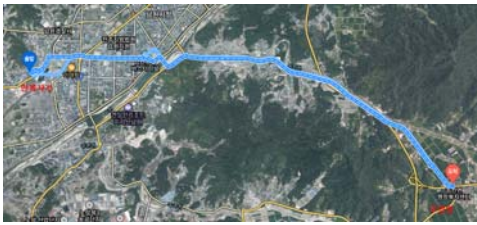
49) “其一曰鄭氏, 其二曰吳氏, 其三曰金氏, 其四曰柳氏, 皆貴家巨族, 而與女子同閨閤, 親戚而處子者也.” 박희병 표절·교석, 위의 책, 104~105면. 한편 『남원읍지』에 따르면 동래정씨(東萊鄭氏), 함양오씨(咸陽吳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문화유씨(文化柳氏)가 이 지역의 유력한 성관(姓貫)으로 참조된다.

50) 구례 천은사(泉隱寺)에 전하는 1698년의 필사본 『호좌 남원부 지리산 감로사 사적』(湖左南原府智異山甘露寺事蹟)에 ‘정령치 인근에 도선이 창건한 개령암(開嶺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곳을 ‘개령암지’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다. 윤덕향, 『정령치 마애불상군 조사보고』, 『전북문화연구』 5집, 1991(남원시,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남원시, 2019. 125면에서 재인용).

51) 조경남의 『난중잡록』에 “지리산의 황령사(黃嶺寺)와 향로봉 사이에 황류동(黃流洞)이 있는데, 수원(水源)은 반야봉(般若峯)에서 나와 삼기(三岐) 묘봉(妙峯)을 두루 돌아서 내려온다”

지기도 한 것을 보건대, 이 절 역시 김시습이 부른 것처럼 ‘개령사’라고 칭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²⁾ 이에 현재 개령암지가 있는 곳 아래의 산골짜기를 『만복사저포기』의 개령동으로 비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만복사에서 개령암지까지는 약 18km 거리이다. 구 남원읍내의 서쪽인 남원시 왕정동의 만복사지를 출발하여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의 개령암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 14>에서와 같이 남원시내를 가로질러 주천면사무소가 있는 장안리까지 이동해야 한다. 남원 시내를 나온 뒤 여기까지



<그림 14> 만복사지에서 주천면사무소까지 8km. 남원시내를 통과하여 지리산 방향으로 이동

는 오래된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다. 면소재지를 지나면 곧 호경리인데 여기서부터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시작된다. 만복사에서 이곳까지는 도보로 2시간쯤 걸리는데, 이는 ‘새벽에 양생을 알아보는 사

람들이 다니는 마을을 통과하고 여인이 이끄는 대로 계속 걸어 이슬이 흥건한 풀섶길에 이르렀을 때 아침이 되었다’고 한 소설의 시간에 대략 상응한다.

한편 <그림 15>에서와 같이 남원시 호경리의 지리산국립공원 입구에서 개령암지까지 이어지는 산길은 현재 자동차 도로가 놓여 있으며, 별도로 ‘정령치로’라고 도로명이 붙어 있다. 이 길은 본디 전라도 남원에서 경상도 함양으로 넘어가는 오래된 고갯길인데, 그 중요한 분기점에 ‘정령치’라는 고개가 있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와 산내면 덕동리 사이의 이 고갯마루에 올라 서쪽을 향하면 그때까지 지나온 주천면 길과 남원시내까지 조망할 수 있다.

(至黃流洞, 在智異山黃嶺寺香爐峯之間, 其源出般若峯, 盤回三岐眇峯而下)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남효온은 『지리산 일과』(智異山日課)에서 “반야봉 서쪽에 방장산이 있고, 방장산 꼭대기에 만복대(萬福臺)가 있다. 만복대 동쪽에 묘봉암(妙峰庵)이 있고, 만복대 북쪽에 보문암(普門庵)이 있으니, 일명이 황령암(黃嶺庵)이다”(峯西有方丈山, 山頭有萬福臺, 臺東有妙峯庵, 臺北有普門庵, 一名黃嶺庵)라고 하여 같은 곳을 황령암이라 했다.

52) 황호균, 『지리산 정령치 마애불상군 조성배경』(『불교문화연구』 4집, 1994)에 따르면 친은사의 ‘호좌 남원부 지리산 감로사 사적’에는 개령암 외에도 황령암(黃嶺庵) 등 인근의 여러 암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 ‘황령암’은 ‘黃嶺寺’라는 이름으로 <여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이런 예를 보자면 개령암의 다른 이름이 개령사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개령암지는 정령치 고갯마루에서 오른쪽으로 500m 정도 산길을 따라가면 나온다. 암벽에 마애불이 여럿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비스듬한 평지와 샘이 있어 그곳이 절터였음을 알려준다. 보물로 지정된 마애불이 있는 절벽



<그림 15> 주천면에서 개령암지까지 약 10km. 그 사이에 계곡이 발달해 있음



<그림 16> 개령암지는 정령치 표지판의 오른쪽, 고리봉 방향 500m 거리에 있음. 2023년 7월 31일 촬영



<그림 17> 정령치에서 서쪽을 향했을 때의 풍경. 산이 깊고 계곡이 많은데, 멀리 남원 시내가 보임. 2023년 7월 31일 촬영

근방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도자기 조각 등이 일부 발굴된바, 현재 그곳이 ‘개령암지’로 지정되어 있다. 지리산 정령치는 전라도 남원에서 경상도 함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주요 고개다. 이 정령치에서 개령암지를 지나 8km쯤 가면 팔랑치라는 고개가 나오는데,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이 고개가 경상도 함양으로 이어진다. 정령치가 영남과 호남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 되므로, 그곳을 지나는 이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개령암/개령사와 같은 절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⁵³⁾

지금은 마애불만 남아 있지만 1462년 무렵에는 그곳에 절이 있었고 당시 인군을 지낸 적 있던 김시습은 그 절을 ‘개령사’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만북

53) 비슷하게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길에 있던 고개인 여원치(전북 남원시 이백면에서 운봉읍으로 향하는 국도 상의 고개)에도 마애불이 있다.

사저포기』의 여주인공이 임시로 매장된 골짜기를 그 절 아래의 계곡으로 설정하여 ‘개령동’이라는 장소명을 사용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복사저포기』의 ‘개령동’은 지리산 정령치에서 남원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있는 깊은 계곡의 어느



<그림 18> 개령암지 마애불.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정령치로 1523[덕동리 산 215]. 2023년 7월 31일 촬영



<그림 19> 개령암지 마애불(부분확대). 2023년 7월 31일 촬영

굽이이고, 결국 지리산의 서쪽 구역인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 일대라고 비정할 수 있다. 지금은 지리산의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자동차 도로가 고갯마루까지 놓여 있음에도, 정령치 아래 초목이 우거지고 시냇물과 폭포가 흐르는 골짜기들의 풍경은 『만복사저포기』에 그려진 개령동의 분위기와 꼭 어울린다. 여주인공은 자신이 3년간 머문 개령동에 대해 ‘외진 땅 구석진 곳의 초야(草野)’로서 ‘구름과 물이 흐르는 빈 골짜기’라고 표현했고,⁵⁴⁾ 양생의 눈에

비친 그곳은 숲이 들관을 뒤덮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가린 풍경이었다.⁵⁵⁾

한편, 『유호남록』에 남은 김시습의 행적은, 그가 실제 ‘개령사’를 보았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1462년의 호남 여행이 끝날 무렵, 김시습은 남원에 이르러 광한루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지는 해를 보았고 『남원 광한루에서 피리 소리를 듣다』(南原廣寒樓上聞笛)라는 시를 지은 바 있다. 같은 날 근방

54) “避地僻處，僑居草野，已三年矣。然而秋月春花，傷心虛度，野雲流水，無聊送日，幽居在空谷。”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01면.

55) “遂同去開寧洞。蓬蒿蔽野，荊棘參天。”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04면.

의 만복사도 보았을 듯한데, 그곳에 대해서는 시를 쓰는 대신 『만복사저포기』라는 소설에 그 장소를 재현했다. 광한루 시 다음으로 『안신원』(安愼院) 시가 이어진 것을 보건대, 김시습은 남원을 곧 떠난 듯하다. 남원부 동쪽 30리에 있는 안신원은 지리산의 길목에 있는 역원으로, 지리산을 지나 영남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을 알려 준다.

風樹疏蟬咽晚涼, 바람 나무에 쓸쓸한 매미 찬 저녁을 우는데
 客中秋興正茫茫, 나그네의 추흥(秋興)은 아득하여라.
 老從頭上旋旋過, 늙음은 머리 위에 금세 찾아오고
 人向塵間日日忙, 티끌 사이 사람들은 날마다 바쁘다.
 智異尖峯高插漢, 지리산 침봉(尖峯)이 은하수 높이 꽂혔고
 帶方疏樹老經霜, 남원의 잎진 나무는 늘그막 서리를 겪네.
 此身正似浮雲遍, 이 몸은 흐르는 뜬구름 같은데
 將向天東望大洋, 하늘 동쪽 향하러 큰 바다 바라보노라.⁵⁶⁾

동쪽으로 영남을 향하며, 가야 할 방향에 있는 지리산의 높다란 봉우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이 떠난 남원의 숲을 돌아보는 여행자 김시습의 마음이 위의 시 『안신원』에 잘 나타나 있다. 이어지는 『팔라현』(八螺峴) 시는 그의 여정을 좀 더 또렷이 보여 준다.

逶迤山路少人行, 구불구불 산길에 다니는 이 적은데
 枯樹斜陽動客情, 석양의 고목 보니 걱정(客情)이 울렁이네.
 老豹亡曹啼曠野, 늙은 표범 무리 잃어 광야에 울고
 霜鷹趁窺下危棚, 서리 매는 토끼 쫓아 높은 시렁에 내려앉네.
 半身落日歸辰樹, 반쯤 진 해는 진한(辰韓)의 숲에 돌아가고
 一片高峯隔帶京, 한 조각 높은 봉우리 너머 남원이 있네.
 世路秋風正蕭索, 세상 길에 가을바람 쓸쓸히 부는데
 旅魂飄泊似懸旌, 떠도는 나그네 혼은 매달린 깃발 같네.⁵⁷⁾

‘팔랑치’(팔랑치)라고도 하는 ‘팔라현’(八螺峴)은 호남과 영남 사이의 경

56) 김시습, 『安愼院』, 『매월당시집』 권11.

57) 김시습, 『八螺峴』, 『매월당시집』 권11.

계가 되는 고갯마루 중의 하나로서, 전북 남원시 인월면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사이에 있다. 인용문 중 ‘반쯤 진 해는 진한(辰韓)의 숲에 돌아가고 / 한 조각 높은 봉우리 너머 남원이 있네’라는 구절이 영호남을 잇는 팔랑치의 지리적 특성과, 영호남의 경계에서 있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잘 드러냈다. 또한 이 시는 남원 읍내를 출발한 다음 정령치를 지나고 팔랑치를 넘어 함양을 향하



<그림 20> 정령치에서 개령암지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정표. 여기서 팔랑치까지 7.7km라고 표시되어 있음. 2023년 7월 31일 촬영

는⁵⁸⁾ 김시습의 여정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이 길 중에 앞서 언급한 만복사지로부터 개령암지까지의 경로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김시습은 만복사 인근의 남원 읍내를 떠나 지금의 주천면을 통과해 지리산 초입에 이르렀고, 정령치까지의 산길을 오른 뒤 팔랑치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이 노정 중 정령치를 경유하며 그 인근의 개령암/개령사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리산을 통과하는 길에 안신원과 팔랑치를 지나던 김시습은 개령암/개령사와 상당히 가까이 있었다. 김시습의 이런 경험이 소설의 공간 창조에 반영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만복사저포기』에서 여주인공이 양생의 손을 잡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걸어간 길은, 만복사로부터 정령치 아래 지리산 서쪽 기슭의 골짜기까지의 경로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보련사(寶蓮寺), 양생과 그 여자의 이별 장소

이후 무덤으로 밝혀질 개령동 ‘그 여자네 집’에서 사흘을 보낸 후, 양생은 못내 아쉬워하며 그곳을 떠난다. 떠나기에 앞서 그 여자는 양생에게 은그릇

58) 실제로 『팔라현』 다음에 수록된 시가 『함양』(咸陽)이다. 『매월당시집』 권11에 실린 이 시에는 “가을바람에 나부끼듯 함양으로 건너오니 / 아득한 산천이 눈 가득 들어오네 / 나령(螺嶺)의 잔운(殘雲)에 나그네 생각 길을 잃고 / 두봉(頭峯)의 늙은 나무는 사람을 번거케 하네”(秋風萍泛度咸陽, 滿眼山川入渺茫. 螺嶺殘雲迷客思, 頭峯老樹惱人腸)라 하여 팔랑치를 넘어 함양으로 들어온 때의 마음이 그려져 있다.

하나를 주며 ‘내일 부모님이 보련사(寶蓮寺)에서 나에게 밥을 차려 주실 텐데, 길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절로 가서 함께 부모님을 뵙자’고 했다.⁵⁹⁾

부장품(副葬品) 중 하나였던 그 은그릇이 단서가 되어, 양생은 남원의 명문 호족(豪族)으로 추정되는 그 여자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왜구의 창칼에 희생되었고, 개령사의 골짜기에 임시로 매장되었으며, 보련사에서 부모님을 함께 뵙기로 한 그날이 그 여자의 대상일(大祥日)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런 말에도 양생은 별 동요 없이 우두커니 서서 그 여자를 기다렸다가 기쁘게 만나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갔다.⁶⁰⁾

그 여자는 자신의 부모나 보련사의 승려에게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양생에게만 보였다. 그날 저녁 그 여자는 양생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에 맺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떠날 때가 되자 양생과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딸을 시집보내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슬픔 때문에 아득한 저승에서도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고 울음 섞인 마지막 목소리를 남겼다.

이승에 남겨진 세 사람, 즉 죽은 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된 부모와, 그 여자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양생은 슬프고 마음이 아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흐느껴 울었다. 이처럼 그 여자의 대상일에 보련사에서 이루어진 천도재(薦度齋)는 양생에게는 그 여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슬픈 이별의 자리였다.

양생은 여주인공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아울러, 그 여자가 자신과 같은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오는 불안감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여자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의심과 불안을 애써 떨치며 그와 함께 있고자 했고, 나중에는 그가 자신에게만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도 그다지 개의치 않게 되어

59) “酒盡相別，女出銀椀一具以贈生曰：‘明日，父母飯我于寶蓮寺。若不遺我，請遲于路上，同歸梵宇，同觀父母如何？’生曰：‘諾。’”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10면.

60) “生如其言，執椀待于路上，果見巨室右族薦女子之大祥，車馬駢闐，上于寶蓮寺。見路傍有一書生執椀而立，從者曰：‘娘子殉葬之物，已爲他人所偷矣。’主曰：‘如何？’從者曰：‘此生所執之椀是也。’遂聚馬以問，生如其前約以對，父母感訝良久，曰：‘吾止有一女子，當寇賊傷亂之時，死於干戈，不能窺窆，殯于開寧寺之洞，因循不葬，以至於今。今日大祥已至，暫設齋筵，以追冥路。君如其約，請嫁女子以來，願勿愕也。’言訖先歸。生佇立以待。及期，果一女子，從侍婢腰裏而來，卽其女也。相喜携手而歸。”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10면.

그가 이끄는 대로 개령동을 향했다.

그리고 개령동에서 보낸 사흘은, 양생으로 하여금, 그 여자가 귀신이든 무엇이든 그를 향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겠다는 두터운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켰다. 이처럼 불안감을 동반한 양생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은 소설의 긴장감을 점차 고조시킨다.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속절 없이 보내야 했을 때가 양생에게 가장 비통한 순간이었음을 감안하자면, 보련사에 남겨진 세 사람, 즉 이승에서 딸을 가장 사랑한 그 부모와 또 그 이상으로 그 여자를 사랑한 양생이 머리를 맞대고 우는 장면은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에서는 보련사의 위치를 고증하기 위해 ‘남원부 서쪽 40리에 보련산(寶蓮山)이 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주로 참조했다. 보련사와 이름을 공유한 남원 보련산은 그 외의 문헌에도 보이는데, 우선 『동국여지지』의 다음 내용이 참조된다.

고정산. 남원부 서쪽 30리에 있다. 북쪽으로는 월계산과, 남쪽으로는 보련산과 서로 이어져 있다.

보련산. 남원부 서쪽 40리에 있다. 그 상봉(上峯)을 환봉(環峯)이라 한다.⁶¹⁾

위 인용문에서 보련산이 남원부 서쪽 40리에 있다는 언급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일치한다. 그리고 보련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환봉’(環峯: 고리봉)이고 보련산과 고정산 두 산이 이어져 있다는 언급은 이 산의 위치와 범위를 알려주는 추가적 정보가 된다. 남원



<그림 21> 문덕봉-고리봉 등반안내도(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만학동 입구). 2022년 11월 4일 촬영

61) “高政山, 在府西三十里, 北與月鷄山, 南與寶蓮山相連. 寶蓮山, 在府西四十里, 其上峯曰環峯.” 유형원(柳馨遠),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남원도호부’



<그림 22> 보련산 기슭의 골짜기.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만학동 계곡(만학골). 2022년 11월 4일 촬영

시 금지면 방촌리 만학동 입구의 등반안내도에는 문덕봉(598m)-고정봉(605m)-그럭재-두바리봉(555m)-삿갓봉(629m)-고리봉(709m)-만학재-만학동 계곡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표시돼 있다. 지도에 따르면 등산로는 돌로 나뉜 산줄기가 그럭재로 연결된 형국으로, 문덕봉과 고정봉이 첫 번째이고 두바리봉과 삿갓봉 및 고리봉이 두 번째 산줄기에 해당한다. 이는 ‘고정산과 보련산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동국여지지』의 내용에 상응하는바, 보련산이 두바리봉과 삿갓봉, 고리봉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을 통칭한다는 점이 확

인된다. 세 봉우리 중 해발 709m의 고리봉이 가장 높다는 점도 『동국여지지』의 기술과 일치한다. 이에 보련산의 위치를 전북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산 141-1 고리봉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⁶²⁾ 보련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금지면 방촌리의 만학동 근방이라는 추정이 제기되어 있고,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⁶³⁾

한편 김시습의 교유인물 중 한 사람인 서거정(徐居正)의 글 『귀래정기』(歸來亭記)에도 남원 보련산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그에 따르면 신말주

62) 신회경, 앞의 논문에서는 고리봉이 바로 보련산이라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고리봉을 포함한 일련의 봉우리들을 보련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63) 신회경, 위의 논문에서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에 ‘절터’라는 지명이 있으며, 만학동 계곡을 따라 1km 정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야생차 군락지, 석벽과 함께 주변 600평 이상의 지역에서 기왓장과 토기 파편들이 발견된 점을 확인했다’고 하여 보련산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중요한 여러 단서를 제공했다. 한편 남원 금지면 서매리에서 다원인 ‘매월당’을 운영하는 오동섭 대표의 말에 따르면(2022년 11월 4일 방문 인터뷰) 다원 뒤편의 만학동 계곡을 따라 오래된 야생차 군락지와 절터가 있다고 한다. 필자가 답사한 바에 따르면 그 근방으로 숲과 계곡이 발달해 있고 간간이 평지가 있어 절이 있었을 법하다는 심증은 있으나 정확히 어느 곳이라고 비정할 만한 단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보련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더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申末舟, 1429~1505)가 낙향하여 거처를 마련한 곳인 순창 남산에서 바라 보면 푸르디푸른 남원의 보련산과 곡성의 동지악이 두 손을 맞잡아 읊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⁶⁴⁾ 서거정의 이 글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에서 본 남원 보련산의 모습을 알려주며, 이 산이 아래로 전남 곡성의 동악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도 아울러 제공한다. 보련산에 대한 여러 문헌 기록들은, 보련사와 관련된 이 산이 남원부의 서쪽 끝에 있으며, 순창 및 곡성과 이어져 있다는 비교적 큰 구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

5. 지리산(智異山), 양생이 사라진 장소

보련사에서 그 여자를 저승으로 완전히 보내고 난 이튿날, 양생은 이전의 자취를 찾아 개령동으로 갔다. 거기에는 과연 그 여자를 빈장(殯葬)해 둔 곳이 있었다.⁶⁵⁾ ‘빈장’이란 숨진 즉시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임시 건물 안에 안치해 두는 의례로서 일종의 가매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처럼 3년간 빈장해 두는 것은, 고대의 경우 신분이 높은 사람과 관련된 풍습이기도 하다.⁶⁶⁾ 이에 그 여자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에 건물이 있었다는 정황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앞서 양생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개령동에 도착했을 때 조그맣고 화려한 집이 있어 그곳에서 사흘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 데 대한 부연설명으로 삼을 수 있다.⁶⁷⁾ 이 점은 신광한(申光

64) 서거정, 『歸來亭記』, 『四佳集』 권2. “든기로 순창의 남쪽에 산이 있는데 넓고 크며 높이 솟아 기세가 특이하고 훌륭했다. (...) 산에 올라 바라보면 남원의 보련산과 곡성의 동지악이 푸르디푸르게 모이고 휘돌아 두 손을 맞잡아 읊하며 서로 조화하는 것 같다.”(嘗聞滄之南有山, 磅礴扶輿, 勢甚奇偉. (...) 登而望之, 則南原之寶蓮山, 谷城之動地岳, 攢青繚碧, 拱揖相朝)

65) 翌日設牲牢朋酒, 以尋前迹, 果一殯葬處也.

66) 빈장이란 무슨 사정에 따라 완전히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송장을 방 안에 둘 수 없는 경우에 한테나 또는 의짓간에 관을 놓고 이영 같은 것으로 그 위를 이어서 눈비를 가리게 하는 일로서, ‘초빈(草殯)’이라고도 한다. 삼국시대에 왕을 비롯한 지배층에 대해서는 대체로 3년(만 2년)간 빈장을 하였다. 빈장의 예로 가장 잘 알려진 경우가 백제 무령왕릉이다. 이 경우 사망 후 27~28개월간의 빈장을 치른 뒤에 능묘에 안장하는 형태의 상장의례(喪葬儀禮)를 치렀다고 알려져 있다. 강원표, 『무령왕릉(武寧王陵) 장례과정(葬禮過程)에서 설치식(設置式) 관(棺)의 검토』, 『백제학보』 38권, 2021. 59~88면.

67) 개령동의 초빈처는 구우(瞿佑)의 『전등신화』(剪燈新話)에 수록된 『모란등기』(牡丹燈記)에서, 여주인공 여경(麗卿)이 매장되어 있지 않고 호심사(湖心寺) 구석방에 놓인 관 속의 해골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설정이다(“교생이 (...) 들어가 자세히 보니 안에는 객사한 사람의 관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하얀 종이 위에는 ‘고(故) 봉화(奉化) 부주판(符州判)의 딸 여

漢, 1484~1555)의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서 주인공 남성이 들어간 화려한 집이 실은 무덤이었고, 나중에 여주인공의 부모가 무덤을 파헤쳐 딸을 꺼내 왔다고 한 것과 비교된다.⁶⁸⁾ 요컨대 양생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며 ‘그 여자네 집’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본 것에 상응하는 건물과 실내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생은 그 빈장처(殯葬處)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제수(祭需)를 차리고 지전을 불태워 장례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애도문을 써서 그 여자와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다.⁶⁹⁾ 양생은 이 글에서 ‘지난날 하룻밤의 만남으로 마음의 실마리가 얽히게 되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알면서도 물에서 노니는 물고기처럼 함께 즐거움을 다하였다’고 했는데,⁷⁰⁾ 이는 애초에 서로가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에 모든 것을 쏟았던 양생의 마음을 명료히 보여준다. 그리고 “마땅히 강림해 뜰에 오르고 그대의 기운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오. 삶과 죽음의 길이 다르다지만 이 글월이 그대에게 느껴졌으면 하오.”⁷¹⁾라는 애도문의 마지막 구절에는 영혼이나마 자기 곁에 있어 달라며 어떤 식으로든 그 여자와 이어져 있기를 바라는 양생의 심적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결국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과 연결된다.

그 뒤 슬픔의 감정이 더욱 지극해진 양생은, 전답을 모두 팔아 그 여자를 위한 천도재를 두 번 세 번 지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 여자는 공중의 목소리로 나타나, 양생이 천발(薦拔: 망자의 넋을 좋은 곳으로 인도함)해 준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더해 그 여자는 ‘정업(淨業: 善業)을 닦아 우리 함께 윤회에서 벗어나자’는 말을 남겼다.⁷²⁾

경(麗卿)의 영구'라고 쓰여 있었다). 구우 저, 정용수 역, 『모란등기』, 『전등신화』, 지만지, 2008. 그러나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이런 설정이 공포를 자아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68) 신광한 저, 박희병·정길수 역, 『하생기우전』,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69) “生設奠哀慟, 焚楮鏹于前, 遂葬焉. 作文以弔之.”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12면.

70) “嚮者一夜邂逅, 心緒纏綿. 雖識幽明之相隔, 實盡魚水之同歡.”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12면. 번역은 박희병, 정길수 역, 『끝나지 않은 사랑』(돌베개, 2010) 182면을 참조하여 약간 고쳤음. 이하 같음.

71) “應降臨而步庭, 或薰蒿而在傍. 雖死生之有異, 庶有感於此章.”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13면.

다음 생애 인연을 이어가자는 기약을 넘어, 불교적 해탈의 경지를 지향한 그 여자의 말이 양생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적어도 양생이 들은 그 여자의 마지막 목소리는 그의 슬픔에는 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그 뒤로 선업을 닦거나 하여 인간 세상의 삶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양생은 다시는 혼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약초를 캔다며 지리산으로 들어가 행방불명인 상태로 삶을 마쳤다.⁷³⁾ 이 결말은 그가 그 여자와의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며, 그것을 해탈보다 귀하게 간직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고증한 개령동의 위치는 양생의 그런 마음의 행로와 육신의 동선에 다가가는 데 참고가 된다. 개령동의 입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곳이 지리산의 초입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생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행방불명이 된다는 ‘부지소종’(不知所終)의 결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양생에게 개령동은 여주인공과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으로 마음에 새겨진 장소였다. 불교적 해탈보다 단 한 번의 사랑을 귀하게 여긴 양생이 그 여자의 흔적을 확인하려 개령동에 갔을 때 그는 이미 지리산에 들어가 있었다. 그가 지리산으로 사라졌을 때 그는 자신이 원래 있던 곳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일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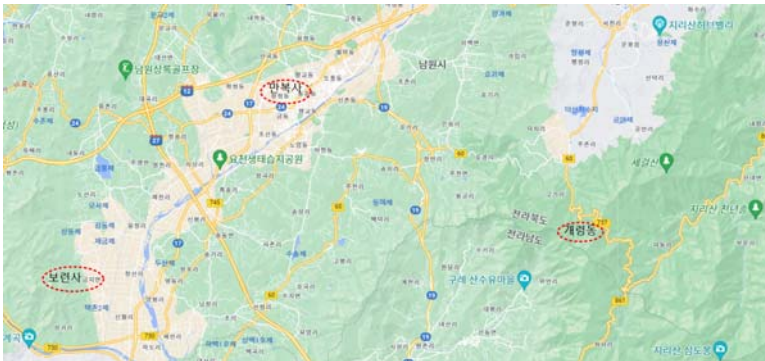
III. 「만복사저포기」의 장소들이 갖는 문학교육적 의의

이상과 같이 「만복사저포기」에 언급된 지명과 장소명을 고증하고 현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통해 이 소설의 서사 공간에 접근해 보았다. 「만복사저포기」의 서사와 결부하여 거론할 만한 장소로는 만복사와 지리산, 그리고 보련사와 개령동을 들 수 있다. 만복사는 전북 남원시 왕정동의 만복사지를 통해 그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다. 만복사의 입지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 절이 남원 읍성과 지근거리에 있으며 오랫동안 고을 백성들의 소망을 두루 수렴하는 장소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리산은 소설의 남

72) “後極其情哀，盡賣田畝，追薦再三。一夕，女於空中唱曰：‘蒙君薦拔，已於他國爲男子矣。雖隔幽明，寔深感佩，君當復修淨業，同脫輪回。’” 박희병 표점·교석, 위의 책, 113면.

73) “生後不復婚嫁，入智異山採藥，不知所終。”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13면.

주인공 양생이 목격된 마지막 장소로서 소설의 결말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양생은 지리산에 약초를 캐러 간다며 떠나 행방불명되었는데, 이 결말로부터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끝내 지키고자 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만복사의 경내에서 지리산의 능선을 볼 수 있다는 경관적 특성은, 이 소설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그 쓸쓸한 결말을 암시하는 공간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림 23> 『만복사지포기』의 주요 공간. 왼쪽으로부터 보련사, 만복사, 개령동, 지리산

한편 보련사는 보련산 아래에 있던 사찰로서, 그 위치는 전북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로 추정된다. 이곳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개의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에 몰입하던 양생이 결국 상대방이 인간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비극적 절정의 순간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령동은 익명의 여주인공이 주로 속한 공간으로, 양생은 이곳에서 보낸 사흘 동안 그 여자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곳은 1379년 혹은 1380년에 있었던 왜구의 남원 침입 때 희생된 여주인공이 임시로 매장된 장소로서,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개령암지 아래의 골짜기로 추정된다. 개령암은 지리산 정령치 인근에 있던 사찰로 전라도 남원에서 경상도 함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김시습은 1462년 남원에서 함양을 거쳐 경주로 가는 노정에 이 근방을 경유했다. 이에 지리산의 권역에 속하게 되는 개령동의 지리적 입지는 소설의 결말부에 보이는 주인공의 행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양생에게 개령동은 여주인공과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으로 마음에 새겨진 장소였다. 불교적 해탈보다 단 한 번의 사랑을 귀하게 여긴 양생이 그 여자의 흔적을 확인하려 개령동에 갔을 때 그는 이미 지리산에 들어가 있었다. 그가 지리산으로 사라졌을 때 그는 자신이 원래 있던 곳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일 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지리산 초입의 개령동은 소설 결말부의 중요한 좌표가 된다.

본고에서 수행한 작업은,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인 ‘한문소설선독’ 수업과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이 강좌를 2018년 2학기부터 2022년 2학기까지 5년간 진행하며 『만복사저포기』의 서사 공간을 재현하는 것을 주요 수업 내용으로 구성하여 한문 원전의 강독과 병행했다. 아울러 수강생들과 함께 만복사지를 답사하기도 했는데, 이 때에는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만복사지 안내판(앞의 <그림 9> 참조)의 오류를 발견하고 고치는 활동이 과제로 부과되었다. 수강생들은 양생의 거주지가 만복사 경내가 아니라는 점, 의복을 포함한 외양 등이 소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지적했다.

한편 『만복사저포기』의 강독이 끝난 뒤에는 다음과 같은 팀 과제가 <그림 23>의 지도와 함께 제시되었다.

※ 『만복사저포기』의 내용과 지도에 표시된 세 장소(만복사, 개령동, 보련사)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 ① 남주인공 양생의 동선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리하고, 그 세부사항을 설명하시오.
- ② 양생은 왜 지리산으로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추론하여 쓰시오.

팀별 논의로 의견을 모은 수강생들은 ①에 대해 “(1)3월 23일, 만복사 동쪽 마을 양생이 혼자 사는 집 → (2)3월 24일 저녁, 만복사 불단 앞 → (3)3월 24일 밤, 만복사 전각 결채의 관방 → (4)3월 24일 한밤중, 만복사 뜰 → (5)3월 25일 새벽, 만복사 근처 남원 읍내 → (6)3월 25일 아침, 남원 동쪽 지리산 기슭 개령동 → (7)3월 25일, 개령동 → (8)3월 26일, 개령동 → (9)3월 27일, 보련사 → (10)3월 28일, 개령동 → (11)미상, 보련사(천도재) → (12)미상, 지리산”과 같은 방식으로 동선의 개요를 파악하고, 지도에 화살표를 그려 표시하며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수강생들은 ㉠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았다. 양생이 지리산으로 사라진 ‘부지소종’(不知所終)의 결말은 우선 그가 간직한 사랑과 슬픔의 깊이를 통해 설명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런데 ‘왜 지리산인가?’하는 문제는 위와 같이 동선을 파악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그저 ‘남원의 권역 안에 지리산이 있으므로’라고 하는 것 이상의 다른 설명도 가능하게 된다.



<그림 24> 지리산 정령치 개령암지 근처에서 바라본 남원. 만복사에서 지리산이 보이듯, 지리산 개령암에서는 남원 고을이 보인다. 약초를 캔다며 지리산으로 들어간 양생은 만복사가 있는 자신의 고향을 한 번쯤 돌아보았을지도 모른다. 2023년 7월 31일 촬영

개령동이 지리산 안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수강생들은, 이 사안을 서사의 전개 및 결말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을 보였다. ‘양생은 그 여자와 함께 개령동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그때가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므로, 그에게는 이곳이 가장 잊지 못할 장소였을 것’이라는 공감적 추측을 기반으로, 수강생들은 개령동에서 그 여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도 양생의 마음은 이곳을 떠나지 못했으리라고 보았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양생이 그때부터 지리산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수강생들은 양생이 만복사 동쪽 마을 배나무가 있던 자신의 집에서 사라지기 전 개령동을 여러 번 찾아갔을 것이며, 어느 날 개령동 골짜기를 따라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개령동의 위치와 소설의 결말을 연결하는 수강생들의 독해 방식에는, 양생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갑작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중이던 사건의 귀결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수강생들은 소설의 공간에 대한 역사지리적 지식을 단서로 삼아, 주인공의 행위의 맥락에 감정을 이입하여 소설의 서사를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길을 발견했다. 본고에서 수행한 역사지리적 고증의 의의도, 결국 문학교육에서 공감적 독해를 이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시습, 『梅月堂集』(한국문집총간 DB).
박희병 표점·교석,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사,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_____,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심경호 역주,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정길수 편역, 『길 위의 노래: 김시습 선집』, 돌베개, 2006.
瞿佑 저, 정용수 역, 『剪燈新話』, 지만지, 2008.
阮嶼 저, 박희병 역,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傳奇漫錄』, 돌베개, 2000.

2. 단행본

- 남원시청,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남원시, 2019.
이영, 『왜구, 고려로 변진 일본의 내란』, 보고서, 2020.
이 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3. 논문

- 강원표, 「무령왕릉(武寧王陵) 장례과정(葬禮過程)에서 설치식(設置式) 관(棺)의 검토」, 『백제학보』 38권, 2021. 59~88면.
김하라, 「『李生窺牆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한문교육논집』 55권, 2020. 49~81면.
신희경, 「『만복사저포기』 공간의 지리적 특성과 의미」, 『온지논총』 73집, 2022. 39~66면.
尹德香, 「萬福寺址 伽藍配置에 대하여」, 『불교미술』 10호, 1991. 221~245면.
陳政煥, 「南原 萬福寺址 佛教美術品 造성과 그 背景」, 『전북사학』 61집, 2021. 33~59면.

The Meeting of Historical Geography and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 Focusing on the Exploration of Place
in *Playing Jeopo at Manboksa Temple* -

Kim Hara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explore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of the space represented in Kim Si-seup's novel *Playing Jeopo at Manboksa Temple*. The spatial setting of this novel is Namwon-si, Jeollabuk-do. Kim Si-seup actually traveled to Honam in 1462 when he was 28 years old and reflected his experience of exploring the Namwon area, including Manboksa Temple, in the creation of the novel space. Therefore, the place names mentioned in this novel serve as an important clue to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approach as actual places in Namwon town. The work of specifically defining the novel's space in this way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novel's narrative and the author's creative consciousness.

Places worth mentioning in connection with the narrative of this novel include Manboksa Temple, Jiri Mountain, Gaeryeong-dong, and Boryeonsa Temple. Manboksa Temple maintains its sense of place through Manboksa Temple Site in Wangjeong-dong, Namwon-si, Jeollabuk-do. What is noteworthy about Manboksa Temple's location is that it is located near a densely populated area of private houses near Namwon Eupseong Fortress and has existed as a temple for a long time, granting the wishes of the people of the town. And Jiri Mountain is the last place where the novel's male protagonist, Yangsaeng, was seen, and is closely connected to the ending of the novel. Yangsaeng goes missing after saying he was going to Mt. Jiri to dig up medicinal herbs. From this ending, we can read his desire to protect his one and only love. Meanwhile, the fact that the ridge of Jiri Mountain can be seen in the distance from the grounds of Manboksa Temple implies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is novel also encompasses the space that hints at its lonely ending.

Boryeonsa Temple is a temple located at the foot of Boryeon Mountain, and its location is presumed to be Bangchon-ri, Geumji-myeon, Namwon-si, Jeollabuk-do. This place contains the climactic moment of the novel when Yangsaeng, who was immersed in love with the heroine despite her many suspicious circumstances, was ultimately forced to accept that the heroine did not belong to the human world.

Gaeryeong-dong is a space where the anonymous heroine mainly belongs, and Yangsaeng came to fully trust and love the woman during the three days he spent there. This is also the temporary burial place of the female protagonist who was sacrific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Namwon in 1379 or 1380. I was the first to raise the inference that this Gaeryeong-dong is the valley below Gaeryeongamji in Deokdong-ri, Sannae-myeon, Namwon-si, Jeollabuk-do. Gaeryeongam was a temple near Jeongnyeongchi on Jiri Mountain, located on the road from Namwon, Jeolla Province, to Hamyang, Gyeongsang Province. The temple, built during the Goryeo Dynasty, no longer exists, leaving behind only a few traces. Kim Si-seup passed through this place in 1462 on his way from Namwon to Gyeongju via Hamyang.

What is noteworthy about the location of Gaeryeong-dong is that it is located within the area of Jiri Mountain. This helps us understand the movements of the ending, where Yangsaeng enters Jiri Mountain and goes missing. For Yangsaeng, Gaeryeong-dong was a place engraved in his heart as it was the place where he spent the longest time with the heroine. When Yangsaeng, who valued one love more than Buddhist liberation, went to Gaeryeong-dong to check for traces of the woman, he had already entered Jiri Mountain. When he disappeared into Jiri Mountain, he had only gone a little deeper from where he originally was. Gaeryeong-dong, located at the starting point of Jiri Mountain, becomes an important coordinate in the movement of Yangsaeng who disappeared without having lost his one and only love.

Keywords: Novel, Place, *Playing Jeopo at Manboksa Temple*, Manboksa Temple, Gaeryeongdong Valley, Boryeonsa Temple, Jiri Mountain

접수일자: 2023. 9. 30.
심사기간: 2023. 10. 1. ~ 2023. 11. 10.
게재결정: 2023. 11. 10.